

Daily Auto Check

2021. 12. 13 (Mon)



자동차/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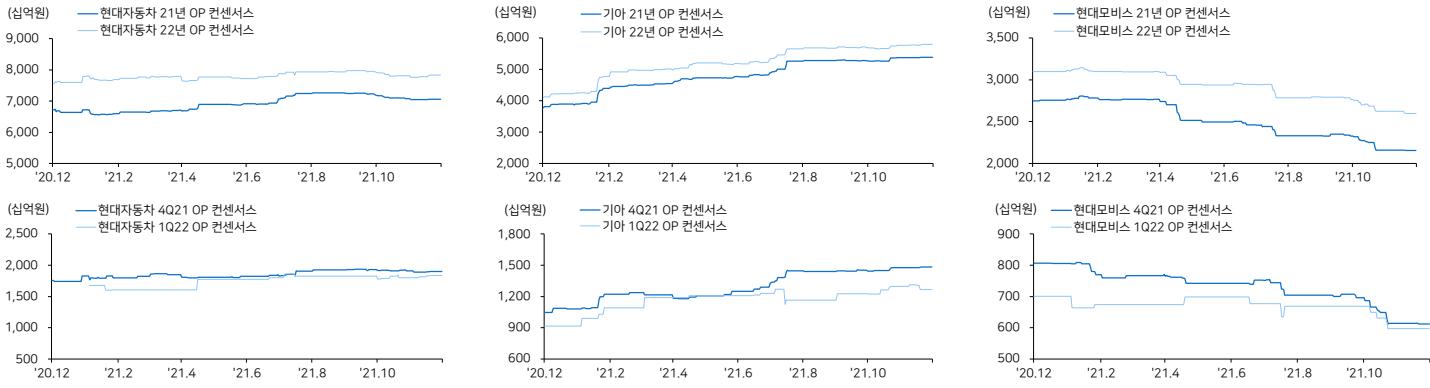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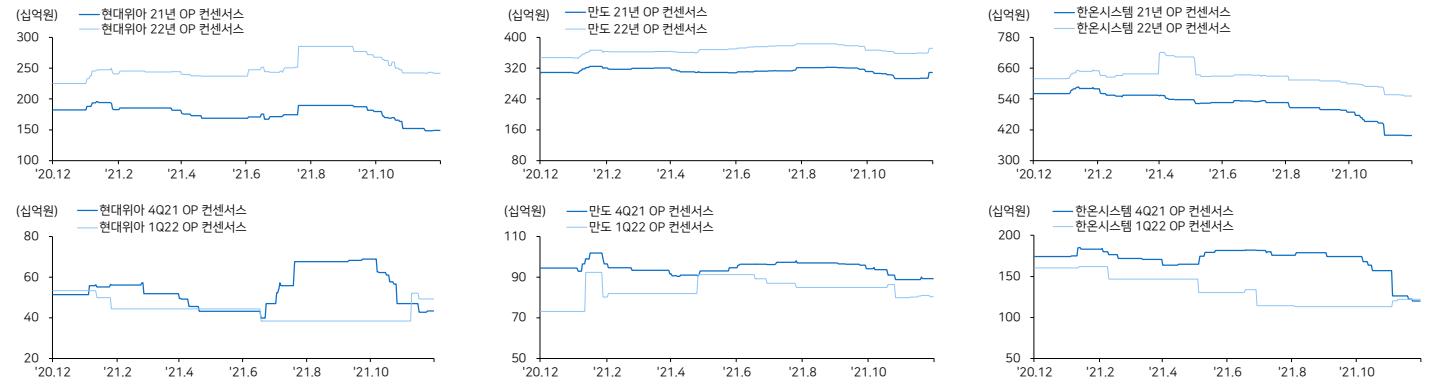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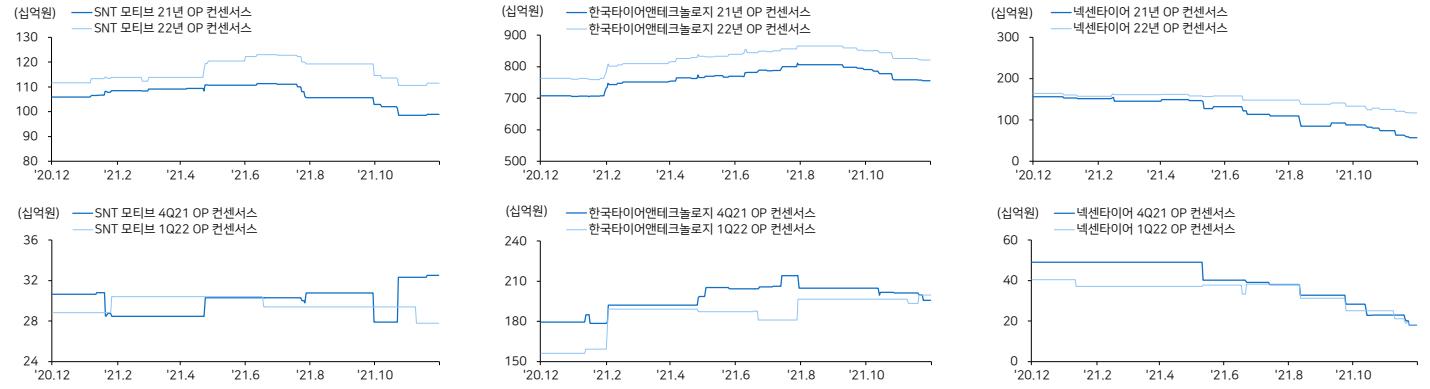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기아, 범퍼·美서 138만대 팔았다…“올해 목표 2만대 초과 달성” (전자신문)

올해 1~11월 현대차·기아는 yoy +25.7% 증가한 138만4,273대를 판매하며 연간 목표치 136만대를 2만대 이상 초과. 올해 미국 수요는 yoy +10% 성장에 그쳤지만 현대차·기아는 yoy +2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한 것.
<https://bit.ly/3nyY4r4>

기아, 스웨덴 전기차 시장서 테슬라 제치고 판매 2위 (조선비즈)

기아는 올해 스웨덴 전기차 시장에서 6,018대를 팔아 폭스바겐(9,296대)에 이어 판매실적 2위에 올라섰. 3위는 테슬라(5,666대)로, 점유율은 기아가 12.7%, 테슬라가 11.9%를 차지함. 기아 EV6가 큰 인기를 끌어 판매실적을 견인함.
<https://bit.ly/3GAJcIC>

Volkswagen boosts Project Trinity budget to electrify its European production plants (Teslarati)

폭스바겐은 유럽 전역의 공장을 전기화 할 계획으로 '프로젝트 트리니티'의 예산을 늘림. 총 1,590억 유로의 예산 중 890억 유로를 5년간 투입, 8개의 공장을 전동화하고 '26년까지 25%의 전동화 차량을 판매할 계획'.
<https://bit.ly/3pS3jel>

GM eyes investments of more than \$4 billion in Michigan EV plants (Reuters)

GM은 전기차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 2개의 미시간 공장에 4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고려 중.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Lansing 인근에 25억 달러 배터리 공장 건설을 제안했으며, 오리온 공장의 전동화 전환에 20억 달러 투자를 고려 중.
<https://reut.rs/3pX1IV4>

현대차·새한 인사…R&D·디자인 수장 교체 (한국경제)

현대차그룹이 이번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계획. 특히, 연구개발과 디자인 분야에서 대대적 혁신이 예상됨.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장과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경영담당 사장이 물러나며, 후임자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
<https://bit.ly/3mIXJ4>

기술 경쟁 치열한 ‘자율주행의 눈’… 포티투단도 라이다 대신 카메라 (조선비즈)

자율주행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카메라·레이더·라이다 등 센서 부품을 활용하는 업체 간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는 중. 테슬라, 포티투단, 모빌아이 등은 라이다 없이 카메라와 인공지능만을 이용한 방법을 고도화 중.
<https://bit.ly/3DQx5o>

Europe's car industry too reliant on other regions, says Bosch chairman (Reuters)

보쉬 회장은 ‘유럽 자동차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셀 등의 핵심 부품의 아시아 및 기타 지역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지적함. 현지 생산 능력 구축이 더딘 바에 따라 완성차업체들의 글로벌 비용 최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움직임이라는 분석.
<https://reut.rs/3m0rINT>

Stellantis will roll out Level 3 self-driving in 2024 (Automotive News)

스텔란티스가 새로운 소프트웨어 전략을 발표. ‘30년까지 차량 SW에서 200억 유로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4년 레벨 3 자율주행을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율주행 기술은 BMW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짐.
<https://bit.ly/3GEss34>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